

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

제8강: 제사법의 보완과 고라 일당의 반역(15-16장)

I. 오늘의 포인트

- 1) 제사법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 문맥을 살펴본다.
- 2) 레위기의 제사법이 민수기에서 보완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3) 고라 일당의 반역의 과정과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II. 본 강의

1. 제사법의 보완(15장)

15장에서 제사법이 등장하는 이유

앞서 광야 생활 초기의 일련의 배교 사건들이 펼쳐졌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서 갑자기 제사법이 선포된다. 그 이유는?
15-19장까지의 전체 문맥을 볼 때 제사법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관통하는 주제는 “사제들과 그들의 직무”라 할 수 있다.

15장: 추가적인 제사 규정(레위기 제사법의 보완)

16장: 고라 일당의 반역

17장: 제사장 가문의 재확증: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18장: 사제들(레위인과 제사장)의 의무와 예우

19장: 속죄의 잣물 제조법과 사용법

20장: 미리암와 아론의 죽음 (광야 여정으로 다시 무대 전환)

1) 짐승을 바칠 때 수반되는 추가적인 제물들(1-12절)

레위기 제사법(1-7장)에서는 짐승을 바칠 때(번제/화목제/속죄제/속건제)
밀가루의 소제와 포도주가 곁들여진다는 말이 없다
민수기에서 이것이 추가되면서 제사법의 완성분이 만들어진다.

희생물	밀가루		기름		전제(포도주)	
양/염소	1/10 에바	2.2 리터	1/4 힌	0.9 리터	1/4 힌	0.9 리터
숫양(매우 큼)	2/10 에바	4.4 리터	1/3 힌	1.2 리터	1/3 힌	1.2 리터
소	3/10 에바	6.6 리터	1/2 힌	1.8 리터	1/2 힌	1.8 리터

2) 제사법의 적용 대상: 본토인과 거류민(영주권자) (13-16절)

3) 첫 추수물 규정(레 23장)의 보완: 곡식 가루의 떡의 봉헌(17-21절)

4) 속죄제 규정(레 4-5장)의 보완(22-28절): 부지 중의 죄

(1) 회중의 부지 중의 범죄 - 번제(소); 소제; 전제; 속죄제(숫염소)
레위기와 모순?

신분	제물	피의 취급	제단 위	남은 고기
(대)제사장	수소	내성소/향단	기름 두 콩팥 간엽	밖에 소각
회중				제사장 섭취
족장	숫염소	마당/번제단		제사장 섭취
평민	암염소 혹은 암양	마당/번제단		제사장 섭취
빈민	비둘기 두 마리 (속죄제와 번제)	마당/번제단	번제 비둘기	속죄제 비둘기 제사장 섭취
극빈	밀가루 1/10 에바	없음	한 움큼	제사장 섭취

가능한 설명 두 가지 (비평주의에 대한 반박)

- 1) 위반된 죄의 종류 차이? 금지명령(레 4:3)과 수행명령(민 15:22)
- 2) 회중에서 제사장이 제외되기 때문?

(2) 개인의 부지 중의 범죄: 암염소 (대표성)

5) 고의적인 악행(29-36절)

- (1) 고의로 무엇을 범한 경우
- (2) “높은 손으로” 범한 죄
- (3) 형벌: 끊어짐(제명) = 사형과 동급
- (4) 사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처벌(32-36절) - 투석형

참고: 반역죄들의 처단의 3중 사례

- (1) ‘성소’를 더럽힘: 나답과 아비후(레 10장) - 불 심판
- (2) ‘성호’(하나님의 이름)를 더럽힘: 혼혈인(레 24장) - 투석형
- (3) ‘성일’을 더럽힘(민 15장): 이스라엘 인 - 투석형

6) 이스라엘인의 특별한 옷 장식: 기억을 위함 (37-41절)

옷단 귀에 술을 단다.

청색 끈을 그 술에 맨다: 청색 염료의 중요성

안식일과 같은 여호와와의 중대한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A Hebrew Cap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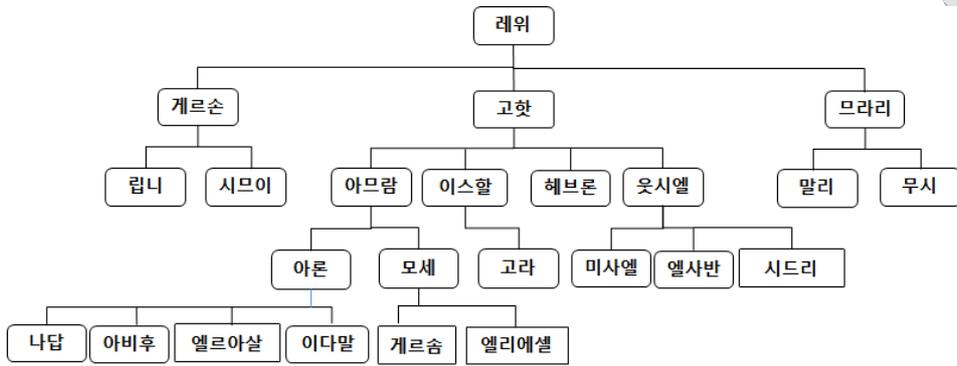
This image, from a painting of a triumphal procession found in the tomb of a pharaoh, shows a Hebrew captive. Distinguishing features include a long beard, bushy hair with head band, and fringed garments. The original is a deep red color. Each time the Egyptians invaded the land of the Jews, they took Jewish captives back to Egypt. 2 Kgs 23:31-34, 2 Chr 12:2-4

나사렛의 마이클

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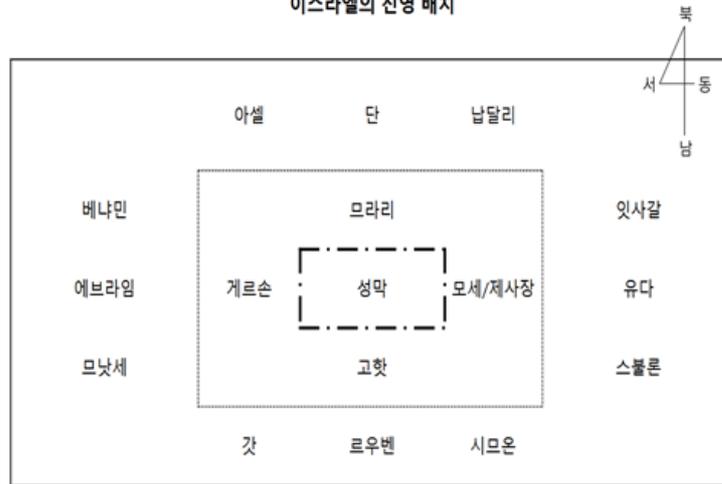
2. 고라 일당의 반역(16장): 아직 광야 초기의 사건

- 1)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함
 - 두 방향(two tracks)의 반역 (비평주의에 반론)
 - (1) 고라 일족: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도전(8-11절)
 - (2) 다단/아비람/온: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12-15절)



고라의 반란의 원인: 엘사반을 고핫 지파장으로 임명한 것에 불만?
 다단/아비람의 반란 원인: 르우벤 지파로서 장자권과 관련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2) 반역의 수습 과정

- (1) 분향 시합의 제안(4-11절): 250명의 고라 추종자들에게 분향 준비 지시
- (2) 대화를 통한 담판 짓기 시도(12-15절):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 거부함
고라를 따른 패거리들은 성막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다단/아비람을 따른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막사 근처에서 제를 규합

소환을 거부하면서 한 말들

“네가 우리를 짓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13절)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13절)

“너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14절)

- (3) 분향 시합의 개최와 하나님의 판정과 징벌(16-24절)
 - 두 심판: 헤렘 심판
 - 불 심판(고라와 250명)과 매물 심판(다단과 아비람 추종자들)
 - 250명의 분향이 처음부터 실패인 이유: 불법 향로와 다른 불

- (4) 남쪽 진영에서 피한 백성들: 일부 고라의 아들들도 피신함

*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운 고라의 아들들!

- (5) 고라 패거리 250명의 향로 250개가 봉헌됨(36-40절): 제단 벽에 붙임

3)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41-50절)

- (1) 놀랍게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함
- (2) 하나님의 재앙(역병)이 내림 - 14,700명 사망
- (3) 아론의 분향을 통한 속죄로 재앙이 그침

III. 오늘의 적용

1) “높은 손”의 반역죄는 구약의 성령 훼방죄라 볼 수 있다. 죄를 심각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자.

2)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렸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영적 위계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자리가 있다.

3) 고라의 아들들은 무너진 가문을 세워 영광의 반열에 섰으며 불법적 향로는 봉헌되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사용되었다. 믿음의 가문은 지금부터 세워도 늦지 않다.

